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토마이도스 순교자

사순절 제5주일

성 마리아 이집트 수녀, 성 토마이도스 순교자

제5조, 조과복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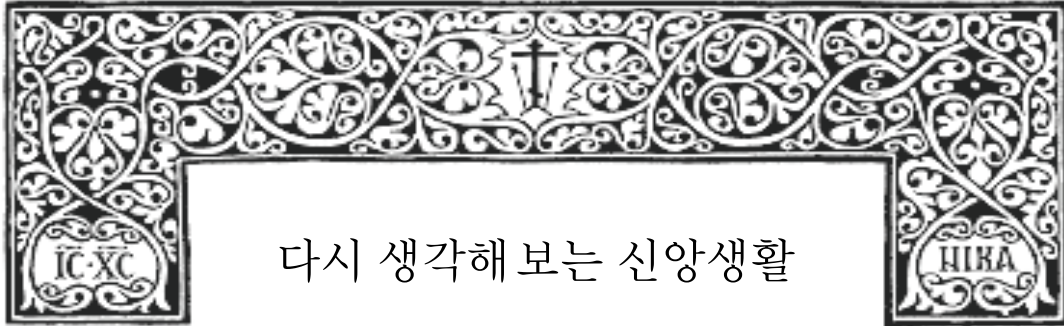
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46, A 139
- 성 마리아 이집트 수녀 찬양송 / 234, B 267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
- 사도경 : 히브리 9,11-14 / 234, 봉독서 457
- 복음경 : 마르코 10,32-45 / 141, B 99
- 성모송(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62, A 171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토마이도스 순교자

사탄은 인간의 영혼에 지저분한 욕망과 욕구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것을 무시하고 욕망을 참아냅니다. 많은 경우 순수한 사람은 이러한 욕망과 마주하게 되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며 그것을 이겨냅니다. 우리 정교회는 이러한 삶의 모범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4월 14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성 토마이도스 순교자의 삶과 희생은 매우 생생합니다. 성

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가정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한 번 일어나고 만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언론을 통해 그러한 비극적 가정사와 사건들을 자주 접합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이 아무런 여과 없이 보도되어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양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러한 상황에 순수하게 희생하고 반대하고 대항하는 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신앙생활

사순절 제5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도 왠지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소중한 기간을 맞고 보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참회의 기간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의 정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자성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는 ‘용서하라, 올바르게 금식하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 실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서 언급된 용서는 단순히 사전에서 풀어주는 것 같이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나에게 잘못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내가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곧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하느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금식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지켜지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금식을 하되 올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올바른 금식입니까? 욕망의 절제입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멀리한다는 것은 확실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재물에 관한 한 누구인들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무엇이 있느냐?’고 믿는 세상이니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에 욕심을 보이면 반드시 그 이상의 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추해집니다. 추해진다는 것은 깨끗함을 원하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에 끝없는 욕심을 보이는 사람이 하느님을 잘 믿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마태오 6,24)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또 다른 나의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 따로 있고, 하느님 믿는 모습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곧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후회 없는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하라, 올바르게 금식하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를 제대로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불신의 세상에서 정교인으로 살아가기 2(트리폰 수도원장)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숨겨서는 안된다. 이 말은 우리가 설교조로 가르치려 들거나 자기의(自己義: 스스로 의로운 체 하는 것)에 빠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기의 신앙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없는 이에 대해서도 따뜻하며 정겹게 대한다. 우리의 정교 전통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해 사랑 어린 증언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출발점이다.

만일 우리가 비신앙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많은 말로 요란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식사를 하기 전 간단한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은 단지 음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자발성을 조용히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성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우리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 금식 기간에 성실히 임하는 것, 매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쓰는 것 등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헌신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꺼이 증언하려는 행위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만일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진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느님이 실제로 계시고, 정교 신앙이 우리의 본성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참다운 삶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이윽고 그들은 우리가 지닌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값비싼 보물과 같은 우리의 신앙 또한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

▶ 아타나시아



성 대주간과 부활절 예식

- 4월 21일 **성지 주일** 오전 8:45 ▷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오후 2:00 ▷ 신라의 예식
- 4월 22일 성 대월요일 오후 6:00 ▷ 신라의 예식
- 4월 23일 성 대화요일 오전 9:00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오후 6:00 ▷ 신라의 의식
- 4월 24일 성 대수요일 오전 9:00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오후 7:00 ▷ 성유성사
- 4월 25일 성 대목요일 오전 9:00 ▷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30 ▷ 주님의 거룩한 고난 예식(12복음 봉독)
- 4월 26일 성 대금요일 오전 9:00 ▷ 대시과(1, 3, 6시과)
오후 3:00 ▷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식
오후 7:00 ▷ 에빠따피오스 예식
- 4월 27일 성 대토요일 오전 9:00 ▷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11:30 ▷ 부활절 예식,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 4월 28일 **부활 주일** 오전 11:00 ▷ 사랑의 대만과 / 오후 12:30 ▷ 사랑의 오찬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안내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이번 주 중에는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6시**에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 부활절 꽃, 달걀 봉헌 신청 ▷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장식 봉헌을 신청받습니다. 부활절 달걀은 성당에 기증하는 부분과 신자분이 가져가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당 대청소 ▷ 오는 4월 21일 성지 주일 성찬예배 후 부활절 준비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모든 신자분들의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부산 성당 선교 초기부터 정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아그니 이덕자 교우께서 지난 4월 4일 안식하셨습니다. 고 아그니 교우는 배우자이신 마태오 임승호 교우와 함께 성모 희보 성당 운영 초창기 때부터 성당의 많은 일에 봉사해오셨습니다. 성당과 교인 모두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한국의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고 아그니 교우의 영혼이 하느님 품 안에서 평온히 안식하기를 기원하면서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주간 예식

- 화, 수, 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4월 17일(수), 19일(금)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4월 20일(토) 라자로의 부활 토요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